

# 현대 승가운동 발자취 '한눈에'

## 실천승가회 '한국 현대불교 운동사' 발간

1986년 6월 5일 불교정토구현 전국승가회(이하 정토구현승가회) 창립과 함께 본격화된 현대 승가운동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집이 나왔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통의 장 청화·지선)는 지난 1일 정토구현승가회 창립 10주년 및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창립 4주년을 기념해 <한국현대불교운동사>(전 2권·행원 권) 정토·대승권을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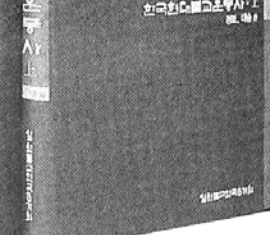
서도 줄곧 종단개혁과 대 사회 활동, 통일운동 등 세가지 방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일궈온 승가운동의 발자취를 역사적 사료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실천불교운동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간 소홀히 다뤄 온 현대불교사 정리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토구현승가회와 대승승가회의 활동시기인 1986년부터

1992년까지의 활동자료와 기관지 모음으로 구성된 이 책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만한 연대사업 자료는 물론 교계신문 기사도 정리했다. 제1부 활동자료 모음, 제2부 신문자료 모음, 제3부 정토·대승 활동일지, 제4부 (정토구현)(창간호~23호) 모음, 제5부 (대승불교)(창간호~33호) 모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제1부는 △1986년 정토구

현승가회 창립과 9·7 해인사 승려대회 △1987년 민주헌법쟁취를 위한 불교공동위 결성과 6·10항쟁 △1988년 공동올림픽추진불교본부와 민족성지 백담사수호 운동 △1989년 승가조직의 토대구축 및 통일운동 △1990년 승가운동의 다양한 모습 △1991년 불교운

대불교자료전집(전 70권), 지난해 출간된 선우도량의 <신문으로 보는 한국불교 근현대사> 등 근·현대 불교사에 대한 교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자료집은 80년대 중반이후 최근대의 불교운동사 자료를 빠짐없이 수록, 사료가 부족한 근·현대 불교사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전망이다.



### 종태스님 추모집 펴내

한편 실천승가회는 실천승가회 초대 집행위원장을 지낸 故종태스님(1952~1994)을 추모하는 문집 <그대 떠나고 빈 자리>(행원 권)를 발간, 지난 1일 출간기념회를 가졌다.

김재경 기자

## 서양인이 본 조선 한국관련 외국고서 총망라

'금강산기' 등 188종 자료조사 15년... 단행본 최고가 150만원

외국에서 간행된 한국관계 고서들을 집대성한 책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고서전문점 '호산방' 대표 박대현씨(43)가 15년여의 노력 끝에 펴낸 <서양인이 본 조선>(전 2권)은 17세기 중엽부터 1949년까지 미국 영국 일본 독

일 등 전세계 각국에서 나온 한국관계 고서 188종 241권을 망라한 서지학(書誌學)관련서다. 외국에서 간행된 한국관련 회귀도서를 한데 모아 분석·평가한 것은 처음이다. 책값이 국내에서 나온 단행본중 가장 비싼 1백50만원이라는 것도 화

제거하다. 1,054쪽의 방대한 분량의 이 책에는 8백여장의 고서사진과 삽화가 실려있으며, 고서에 수록내용에 대한 상세한 해제를 덧붙였다. 한편 불교 관련 서적으로는 4권의 회귀본이 눈길을 끈다. △프랑스 기메 박물관 연구원이었던 M. 뒤몽이 1925년 편찬한 <조선문양집>은 조선의 고분벽화와 탕화, 불상 등에 새겨진 문양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1925

년 독일 성 오틀리엔 베네딕도회 총인장 N. 베버가 쓴 <금강산기>는 금강산을 배경으로 한 조선의 자연과 불교, 민속 등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장안사 표훈사 정양사 보덕굴 유점사 신계사 허공각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1932년 북장로회 선교사 C. A. 클라크가 쓴 <한국의 종교>는 불교 유교 등 한국 종교의 발생과 전래과정 및 사상을 기술한 종교연구서다. △1922년 영국인 J. S. 게이일이 영인 1925년 편찬한 <조선문양집>은 조선의 고분벽화와 탕화, 불상 등에 새겨진 문양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1925



### 새로 나온 책...

▲기려워운 이합경(허정스님 엮음)=원시경전인 4 <아함경>(장아함·중아함·중일아함·잡아함) 중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인 <잡아함경> 가운데 주로 재가자들을 위한 160가지 부처님의 설법을 모아 엮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자들이 알아야 하고 실천해야 할 기본적인 교리를 <잡아함경>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부하게 한다. (부다리아 6천5백원)

▲재미있는 불교이야기(보각스님 지음)=부처님의 전생이야기인 <본생담>에서부터 불교의 꽃인 <법화경>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경전 중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비유와 인연 설화들을 모아 엮은 책. 경전을 좀더 가까이 접하게 하고 나아가 공부의 발심을 내게 한다. (여래 5천5백원)

▲히말라야 기행(김홍성 지음)= '떠나는 자에게는 길은 아름답다. 방향은 사색을 낳고 사색은 후회없는 삶의 밑거름이 된다'. 지상에서 가장 순결한 땅, 금세기까지 1000년간 독립된 불교왕국을 이룬 '라다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히말라야 도보 여행기. 히말라야 오지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저자 김홍성 시인은 시를 쓰는 마음과 산에 오르는 마음이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초당 7천5백원>

▲마음이나 알고 싶다면(임희동 지음)=임희동 변호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느낀 감상과 서원을 산문시 형식으로 쓴 에세이집. '나는 누구인가' '마음의 위대한 능력' '세상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마음을 닦을까요' 등 '마음'을 화두로 한 수행담을 산문시처럼 엮었다. (다산미디어 5천원)

**법화경 총설**      혜경스님 지음

**화제의 책**

법화경총설

법화경총설은 <법화경>을 새롭게 알고자 하는 사람이나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을 위해 불교의 기본사상인 <반야경>을 기저로 하여 부처님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한다. 한편 혜경스님의 책 말미에 고려 천태종의 '법화 참회문'인 <법화삼매의(法華三昧儀)>를 수록,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소개했다. (상양 8천원)

천태사상 기초 해설... 바른 이해도와

<법화경>을 치우침 없이 해석해 왔으나 최근에 쏟아진 <법화경> 해석서들은 일본의 종파불교인 일연종과 일연정종의 교리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한 <법화



### 김경호씨 불교동화 '생명의 저울'

#### '불교설화동해 생명가치 배우자'

'생명의 소중함과 평등함'을 주제로 한 불교동화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김경호씨(불교전략연구소장)가 엮고 신혜원씨가 그림을 그린 <생명의 저울>(푸른나무 권)은 환경과 생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 책은 불경 설화 가운데 '생명의 소중함'을 주제로 한 이야기만을 모은 점이 특징이다. 또 종교적 차

원을 떠나 모든 어린이들이 친근하게 읽도록 불교적인 교리를 다듬어 일반 동화처럼 자연스럽게 이해토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새끼를 뱀 암사슴을 구하기 위해 희생하는 '사슴왕의 희생' △전생애 단 한번 살아있는 생명을 해친 죄로 오백번 다시 태어나는 동안 목이 끊겨 죽어야 하는 고통

을 당하는 '오백 번 목이 끊긴 양' △수행자가 매에게 쫓기는 까치 한마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한다는 '생명의 저울' △문둥병 여인과 수행자 카사파의 이야기를 다룬 '문둥병 여인의 손가락' 등 모두 14편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 책은 불교 설화의 교훈을 통해 생명의 가치를 일깨운다.

####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삶은 썩기 아니다	혜 원	여시아문
2	불교입문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
3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린
4	49재 공덕과 의미	편 집 무	이 바 지
5	그 마음을 바쳐라	김 재 용	용 화
6	저저는 만년 고기목고	우 화	홍은인연
7	영원한 자유의 길	성 철	장 경 각
8	신도 포교지침서	성 일	불 광
9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정 화	장 경 각
10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법 정	샘 터

구입문의: (02)737-0695

**명사추천**

100선

無

불교라면 허무주의이거나 아니면 허무를 극복하려는 공상적 세계관 내지 비현실적 논리일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던 무지한 나로 하여금 불교에 성문 다가서게 한 것은 <무(無)>(김경민 編·글수레 권)란 한권의 책이었다. 대행(大行) 스님의 법어집인 이 책을 손에 들고 읽으면서 나는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불교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한 마음에 지옥도 있고 극락도 있다."

"마음 살림에 따라 부처도 되고 중생도 된다."

스님의 말씀은 평이하고 쉬운 듯하면서도 곱씹게 되는 매력 있다. 그러나 더러는 어리송해서 확연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그런 중에서도 가슴에 깊숙히 꽂히는 한마디 말씀은 '대 자유인이 되라'는 것이었다. 自由人, 정말 자유인이 될 수만 있다면 한번 해 보직하지 아니한가.

"놓으면 살고 붙들면

이제는 내게 못됨을 경계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곳에서 예기치 못한 복병이 뒤를 쫓아오는 것이었다. 나는 울컥 치미는 화를 간신히 참았다. 지내놓고 보니 참으로 부끄러웠다. 일체 경계를 다 넘었다고 해 놓고는... 나는 스님께 고백하듯 말씀 드렸다.

"기어코 너는 경계도 넘은 겁나까?"

"경계가 어디 있는데...?"



정 동 수 (소설가)

## 막연했던 불교관 '명확하게' 실천하는 자유인의 길 제시

죽는 것이 마음뵈이다."

"일체를 다 방하(放下)한다는 말은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를 들어올린다는 말과도 같다."

책을 다 읽고난 며칠후 나는 내게 책을 권했던 동료들 따라 대행스님을 찾아뵈게 되었다. 스님이 내게 물으셨다.

"무엇이라 왔소?"

"공부를 하려고요"

"무슨 공부?"

나는 말문이 막혔다. 생각을 가다듬고 있는데 스님은 옛날이야기같은 설법을 들려 주셨다. 그 이야기를 다 소화할 수는 없거니와 스님 말을 들으니 내게 스님은 지나가는 말처럼 "불호르듯이 해야 하는 거요. 일체 경계를 뛰어넘어서..." 한마디를 던지시는 것이었다. 나는 그 말씀을 얼른 받아 가슴에 넣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일체 경계를 다 넘겠다는 각오를 했다. 그렇게 하기를 수개월,

순간 나는 불에 덴 듯 전신이 확 돌아오름을 느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지만 부끄러움만은 아니었고, 회열인듯 하면서도 그것만은 아니었다.

"아하, 없는 경계에 내가 여태 속았구나!"

나는 집에 들어와 <無>를 다시 읽었다. 바로 이것이었다 싶었다. 막연하고 어리송했던 말들이 그대로 트이면서 밝게 가슴을 비추는 불빛이 되는 것이었다. 지금은 자유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행(行)하며 실천할 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하다 해도 그것은 부처님이 배부른 것이지 우리가 배부른 것이 아닙니다. 부부막의 소금도 넘어야 짜듯이 내가 행하고 내가 겪고 맛을 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無>에서의 이 구절을 모든 이에게 전하고 싶다.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타르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인 <기도>의 발간 이후, 독자들로부터 기도 방법을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저는 현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옳은지요?"... 계속되는 독자들의 기도법에 관한 문의에 저자로서의 책임을 느낀 스님께서는 다시 집필을 시작,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 <생활 속의 기도법>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 할 때 지니야 할 마음가짐까지, 세세한 일타르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임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B6 / 160면 / 값 3,500원

제1장 <기도 성취의 지름길> 제2장 <생활 속의 기도법> 제3장 <특별 기도 성취법> 제4장 <영가 천도 기도법>

祈 禱

기도

일타르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기도>의 발간 이후, 독자들로부터 기도 방법을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저는 현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옳은지요?"... 계속되는 독자들의 기도법에 관한 문의에 저자로서의 책임을 느낀 스님께서는 다시 집필을 시작,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 <생활 속의 기도법>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 할 때 지니야 할 마음가짐까지, 세세한 일타르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임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B6 / 160면 / 값 3,500원

제1장 <기도 성취의 지름길> 제2장 <생활 속의 기도법> 제3장 <특별 기도 성취법> 제4장 <영가 천도 기도법>

생활 속의 기도법

“기도는 실천이지 이론이 아니다. 하지만 법에 맞지 않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 따라서 기도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성취 만큼이나 중요한 일인 것이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합인혜택을 드립니다.

동심요리

전화 : (02) 587-6612 팩스 : (02) 586-9078